미국수화언어와 한국수화언어에서의 WH-의문문*

장 세 은
(한국해양대학교)

Jhang, Sea-Eun. 1999. WH-questions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7-3, 297-31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some aspects of wh-questions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Korean Sign Language, and to show that the data from KSL share some arguments provided by the two current disputing analyses of the rightward and leftward wh-movement. In both ASL and KSL, a nonmanual wh-marking functions as a grammatical marker, and wh-words are *in situ*, or they optionally appear in sentence-final position. In addition, the two languages have the distribution of nonmanual syntactic wh-marking in common. When manual wh-material is available in sentence-final position, the spread of wh-marking over the rest of the sentence is optional; otherwise, spread is obligatory. Two pieces of evidence from KSL in favor of rightward analysis are (i) extraction of wh-words from within an embedded clause and (ii) left-dislocation of wh-words in sentences containing spatial verbs. In contrast, there are three pieces of evidence from KSL in favor of leftward wh-movement: (i) variants of extraction of wh-words from within an embedded clause, (ii) sentence-initial wh-object, (iii) focus function of right-peripheral wh-material in wh-doubles sentences. **(Korea Maritime University)**

1. 서론

미국수화언어(ASL)와 한국수화언어(KSL)의 wh-의문문에서는 비수지적 신호(nonmanual signals)를 문법적인 표지로 사용하고 wh-단어가 제자리(in situ)에 나타나거나 또는 문장의 끝인 오른쪽에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SL과 KSL에서의 이러한 wh-의문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ASL에서 wh-의문문이 wh-우측이동 분석 또는 wh-좌측이동 분석의 두 가지 분석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살펴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보고 이러한 두 가지 이동 분석에서 제시하는 주요 논쟁의 예들이 KSL에서의 자료에서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한다. 2절에서는 wh-의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수지적 wh-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리언어에서의 초분절음과 대응되는 수화언어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ASL에서 Aaron (1994)과 Neidle et al. (1998)이 제안한 wh-우측이동 분석과 Petronio & Lillo-Martin (1997, 이하 줄여서 P&L이라 함)이 제안한 wh-좌측이동 분석의 wh-의문문의 두 가지 분석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된 두 가지 분석방법이 KSL의 wh-의문문의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논의한다. 여기서 (i)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과 비수지적 통사적 wh-표지의 분포성 설명과 (ii) 공간동사를 갖고 있는 문장에서 wh-단어의 좌전위(left dislocation) 현상 등의 KSL의 자료가 wh-우측이동 분석설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wh-좌측이동 분석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적용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i)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의 변이형, (ii) 문두에만 나타나는 wh-목적어를 갖는 wh-의문문 유형, (iii) wh-doubles 문장. 끝으로 5절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앞선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ASL의 자료는 선행연구의 문헌에서 발췌하였으며, KSL의 자료는 부산 거주 선천적 농아인들의 2시간 분량의 일상대화 장면을 수화통역사의 도움으로 8mm 비디오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여 녹취하여 KSL의 어순과 의문문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또한 선천적 농아인 5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이 자료의 문법성을 검증하였다.

2. 비수지적 신호(nonmanual signals)

수화언어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언어적인 단위는 손몸짓 수화(manual signs)와 비수지적 신호(nonmanual signals)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소리언어의 분절음과 초분절음에 각각 대응된다. 소리언어에서 단어를 이루는 분절음은 선형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수화언어에서의 한 단어를 이루는 표시는 여러 공간차원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언어의 초분절음의 특성을 지니는 비수지적 신호는 몸과 머리의 이동과 결합하여 얼굴의 어느 특정부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수화언어의 문법구조에서 문법

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지적 신호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소리언어인 한국어와 영어에서 억양의 초분절음이 통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살펴보자.

(1) 한국어
  a. 철수는 점심 먹었어.
  b. 철수는 점심 먹었어?
(2) 영어
  a. You are going to run tomorrow.
  b. You are going to run tomorrow?

(1)과 (2)의 각 (a)는 서술문이고 각 (b)는 (a)와 문장결정어미나 어순이 동일함을 보여주는 yes-no 의문문이다. 한국어에서 문장의 종결 양식(서술문, 의문문, 명령문등)을 나타내는 서법(mood)은 그에 해당되는 적절한 동사어미로 결정되지만 (1a-b)와 같이 서술문과 같은 종결어미를 가지면 억양이 그 문형을 구별시켜준다. 또한 (2b)와 같이 영어에서도 보조용언(조동사나 대동사)의 위치 변형이 없다면 서술문과 의문문의 구별은 단지 억양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상승조의 억양이 (1)과 (2)의 각 (a)인 서술문과 각 (b)인 의문문을 구분시켜주는 문법적 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

소리언어에서 이러한 억양의 차이가 문형을 결정되듯이 수화언어에서는 비수지적 신호가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표지 기능을 한다. 다음의 ASL의 예를 살펴보자.

(3) a. WOMAN FORGET PURSE
    'The woman forgot the purse.'
    ____y/nq
  b. WOMAN FORGET PURSE
    'Did the woman forget the purse?' (Liddell 1980: 20)

(3a)는 비수지적 신호를 사용하지 않은 무표정(neutral expression)으로 발화한 서술문이다. (3b)는 yes-no 의문문으로 (3a)와 같은 어순을 갖고 있으나 손몸짓 수화와 더불어 발화 처음부터 끝까지 비수지신호인 y/nq가 동시에 이루어진다.[1] Yes-no 의문문에 사용되는 y/nq를 설명할 때, Liddell

(1980)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머리와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는 [brow raise, head forward, body forward] 행위들의 결합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Aarons (1994)에서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벌리고 청자 쪽으로 눈을 응시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끄덕이고 입술을 약간 벌리는 [raised brows, widen eyes, forward tilting of the head, eye gaze at addresses, slight pursing of the lips] 행위들의 결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1)과 (2)에서 살펴본 소리언어에서의 초분절음인 억양이 서술문과 의문문을 구별시켜주듯이 수화언어의 서술문과 의문문의 문장구조의 통사적인 기능은 비수지적 신호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SL에서도 ASL와 같이 yes-no 의문문 형성에 필요한 형태소인 비수지적 신호가 쓰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 a. <철수> <영희> <만났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y/nq

b. <철수> <영희> <만났다>

y/nq

c. <철수> <영희> <만났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나?'

(4b-c)는 서술문인 (4a)와 동일한 어순을 갖지만 y/nq의 비수지적 신호가 (4b)처럼 문장전체에 또는 (4c)처럼 문장의 마지막 요소인 동사에만 주어지면 yes-no 의문문이 된다.[2] 우리가 관찰한 y/nq는 [몸과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눈을 둥글게 크게 뜨고, 입술을 약간 벌리는] 행위들의 결합이다.[3] 이는 ASL의 y/nq 비수지적 신호와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1) 손몸짓 수화로 나타낸 단어는 ASL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KSL에서는 석동일 (1989)에 따라 < >로 표기한다. 그 위에 걸친 부분은 비수지적 신호를 나타낸다.

2) KSL의 yes-no 의문문 중 문장의 마지막 요소인 동사에만 나타나는 y/nq 비수지적 신호를 갖는 (4c)는 흥미롭다. 이는 소리언어의 (1)과 (2)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상승조의 억양으로 올리는 것과 동일하므로 (4c)가 KSL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소리언어에서 유추된 영향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농아인들은 (4c)보다는 (4b)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3) "입술을 약간 벌리는 행위"는 농아인들이 수화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구화에 익숙해져 있어 자연적으로 구화와 병행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ASL과 KSL의 비수지적인 신호의 특성을 소리언어에서의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yes-no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비수지적인 신호가 문법적인 표지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수지적인 신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SL과 KSL에서의 wh-의문문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3. ASL에서의 WH-의문문

ASL wh-의문문에서의 wh-어구는 제자리에 나타나거나 또는 이동할 수 있다. wh-어구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있다. Lillo-Martin (1990), Petronio (1993), P&L (1997)에서는 ASL은 소리언어와 같이 CP의 **좌측** 지정어 자리로의 wh-이동을 주장한다. 반면에 ABKN (1992), Aaron (1994), Neidle et al. (1998)은 ASL의 wh-어구는 CP위치의 우측 지정어자리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wh-좌측이동분석을 제안한 학자들은 ASL의 wh-이동이 모든 구투사는 지정어-머리어-보어의 순서를 보여주고 통사적인 wh-이동은 **좌측이어야** 한다는 보편문법의 **일반화**를 주장한 Kayne (1994)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wh-우측이동분석을 제안하는 학자들은 ASL의 wh-이동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예이므로 보편문법이 우측이동의 선택을 **허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분석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1 wh-우측이동 분석

3.1.1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

아래는 단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wh-어구를 의문화한 경우의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를 보여준다.

(5) ASL에서의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 (Neidle et al. 1998: 820)

wh-표지의 선택적 분배
CP 지정어에 주어 wh-어구

(a) [t_i HATE JOHN]$_{IP}$ WHO$_i$ (wh)
'Who hates John?'

(b) [t_i HATE JOHN]$_{IP}$ WHO$_i$ (wh)
'Who hates John?'

wh-표지의 의무적 분배
제자리(in situ)에 나타나는 주어

(c) [WHO HATE JOHN]$_{IP}$ (wh)
'Who hates John?'

(d) *[WHO HATE JOHN]$_{IP}$ (wh)
'Who hates John?'

(e) *[WHO HATE JOHN]$_{IP}$ (wh)
'Who hates John?'

CP 지정어에 목적어 wh-어구

(f) [JOHN SEE t_i YESTERDAY]$_{IP}$ WHO$_i$ (wh)
'Who did John see yesterday?'

(g) [JOHN SEE t_i YESTERDAY]$_{IP}$ WHO$_i$ (wh)
'Who did John see yesterday?'

제자리(in situ)에 나타나는 목적어

(h) [JOHN SEE WHO YESTERDAY]$_{IP}$ (wh)
'Who did John see yesterday?'

(i) *[JOHN SEE WHO YESTERDAY]$_{IP}$ (wh)
'Who did John see yesterday?'

(j) *[JOHN SEE WHO YESTERDAY]$_{IP}$ (wh)
'Who did John see yesterday?'

ASL의 wh-의문문 형성은 wh-단어가 문장의 오른쪽 끝에 나타나거나 제자리(in situ)에 나타날 수 있다. 주어 또는 목적어인 wh-단어가 오른쪽 끝에 나타나는 (5a, b, f, g)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가 wh-단어에만 주어지거나 (즉, 5b, g) wh-단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에 (즉, 5a, f) 주어져야 적격형의 wh-의문문이 된다. 반면에 주어 또는 목적어인 wh-단어가 제자리에 나타나는 (5c, d, e, h, i, j)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지적 wh-표지가 문장 전체에 주어져야 (즉, 5c, h) 문법적인 의문문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5d, e, i, j)와 같이 비문법적인 의문문이 된다.

비수지적 wh-표지의 선택적이거나 의무적인 분배와 관련된 이러한 분포성은 Neidle et al. (1998)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한다.[4)]

(6) When manual material is available in the rightward spec-CP position, the spread of WH-marking over the rest of the CP is optional; otherwise, spread is obligatory.

그들은 wh-우측이동 분석을 적용하면 (6)의 일반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C자리에 있는 +wh 자질과 관련된 비수지적 신호는 IP 전체에 선택적으로 배분되나, CP의 지정어자리나 C의 자리에 가용한 wh-어구의 손몸짓 수화가 없을 경우에만 비수지적 표시의 분배는 IP 전체에 의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wh의 비수지적 신호는 Aarons (1994)에서 눈썹을 아래로 하고 눈을 좁혀 눈살을 찌푸리고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까닥이고 입술을 약간 뾰족하게 하면서 등글게 만들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lowed brows, narrowed eyes, a slight frown, torso shifted forward, head tilted, rounded lips, slight sharp, side-to-side headshade] 행위들의 결합으로 나타낸다.

3.1.2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

또한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에 대한 (6)의 일반화는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에서도 wh-우측이동 분석이 올바르게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Neidle et al. 1998: 821)

(7) a. [[TEACHER EXPECT [[t_i PASS TEST]$_{IP2}$ t_i]$_{CP2}$]$_{IP1}$ WHO$_i$]$_{CP1}$
wh

b. [[TEACHER EXPECT [[t_i PASS TEST]$_{IP2}$ t_i]$_{CP2}$]$_{IP1}$ WHO$_i$]$_{CP1}$
wh
'Who does the teacher expect to pass the test?'

c. *[[TEACHER EXPECT [[t_i PASS TEST]$_{IP2}$ t_i]$_{CP2}$]$_{IP1}$ WHO$_i$]$_{CP1}$
wh

4) 웹 사이트 http://www.bu.edu/asllrp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이는 Neidle et al. (1998)의 논문 중에 지면상 Language 저널에서 생략한 3.8 SUMMARY의 일부분임.

(7a-b)에서 CP의 오른쪽 지정어자리로 손몸짓 수화인 wh-단어의 매입절에서의 추출은 (6)의 일반화를 만족시켜준다. 그러나 (7c)는 매입절만 비수지적 wh-표지가 분배되고 CP_1의 전체에 분배되지 않아 비문법적이다.

이상과 같이 wh-우측이동 분석은 단문과 복문에서의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의 일반화를 잘 포착해준다고 주장한다.

3.2 wh-좌측이동 분석

3.2.1 wh-doubles

L&P (1997)에 의하면 ASL의 wh-의문문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동일한 wh-요소가 문장의 처음과 끝에 나타나는 다음의 (8)과 같은 예이다.

(8) WHAT NANCY BUY YESTERDAY WHAT
(wh)
'What did Nancy buy yeste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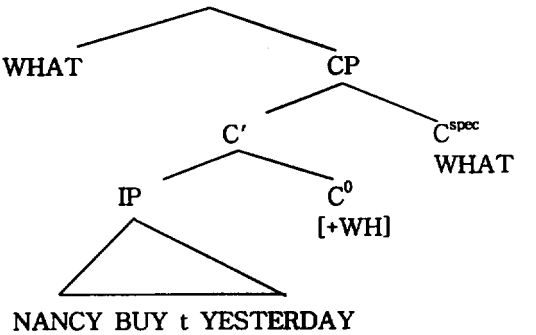
(8)에서 wh-목적어는 문장의 처음과 끝에 동시에 나타난다. 처음의 wh-어구를 'twin'이라 부르고 같은 요소가 끝에 다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double'이라 부르기 때문에 (8)과 같은 예를 wh-doubles구문이라 한다.

동사 BUY와 부가어 YESTERDAY 사이에 wh-단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난 WHAT은 제자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오른쪽 끝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의문문의 문법성에서 알 수 있다.

(9) a. NANCY BUY BOOK YESTERDAY
b. *NANCY BUY YESTERDAY BOOK
'Nancy bought a book yesterday.'

(9a)와 (9b)의 문법성의 대조는 목적어 NP가 문장 마지막에 오는 부사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부사의 오른쪽에 있는 wh-어구는 부사의 왼쪽의 원래 위치에서 IP의 오른쪽 밖의 위치로 이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wh-우측이동 분석에서는 CP의 오른쪽 지정어자리로의 wh-이동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wh-우측이동분석에서는 (8)은 다음과 같은 (10)의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P&L 1997: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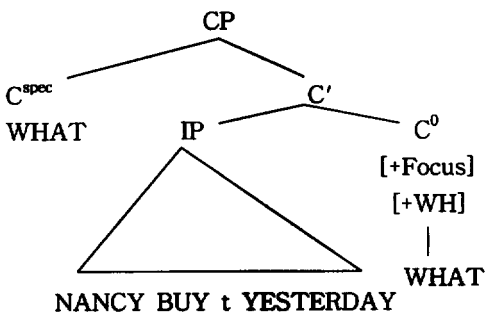
(10)



두 번째 wh-단어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우측이동하고 첫 wh-단어는 CP에 왼쪽에 부가된 화제(topic)의 위치에 기저생성된다고 설명한다.[6]

반면에, wh-좌측이동 분석에서는 두 번째 wh-단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C 자리에 기저생성된다고 보고 (8)은 다음의 (1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11)



(10)과는 달리 첫 번째의 wh-어구가 소리언어와 같이 CP의 왼쪽 지정어 위치

---

5) wh-우측분석의 문헌에는 CP위의 범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단지 CP 밖의 화제(topic)자리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L&P(1997)에 따라 여기서도 구체적인 범주를 밝히지 않는다.

6) 우측이동분석을 주장하는 Aarons (1994)에서는 (11)의 구조를 갖는 (8)은 (i)과 같이 관찰하고 "What, what did Nancy buy yesterday?"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i) wh/t ____ wh
WHAT NANCY BUY YESTERDAY WHAT

로 이동된 것으로 본다. 또한 C의 위치는 IP의 오른쪽에 있어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wh-단어는 초점자질(+F)을 갖고 있는 C의 위치에 기저생성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증거로 서법(modal)이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문미에 같은 요소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비의문문 double구문의 문법성을 든다.[7] 그리하여 P&L은 문미에 나타나는 double은 어구(phrase)가 될 수 없는 이러한 구문의 특성이 wh-doubles구문에도 같은 제약을 보여주는 문법성의 대조의 예를 제시한다.[8]

(12) a. WHICH COMPUTER JOHN BUY WHICH
wh

b. *WHICH COMPUTER JOHN BUY WHICH COMPUTER
wh
'Which computer did John buy?'

---

7) Petronio (1993)에서 double구문의 강조현상과 문미의 double은 한 개의 머리어(즉, X^0)이어야 하는 제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미의 double은 [+F]자질을 갖는 CP의 머리어(즉 C^0)에 기저생성된다고 제안한다. 어구는 머리어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ib)의 복합어구가 문미의 double이 왜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비수지적 신호인 'hn'은 머리를 끄덕임(headnod)을 의미하고 문장의 상황(event)을 강조(emphasis)하는 영어조동사 'do'와 'be'와 같은 존재서술어(existential predicate)의 기능을 한다.

(i) a. NANCY HATE ICE-CREAM HATE
hn

b. *NANCY HATE ICE-CREAM HATE ICE-CREAM
hn
'Nancy **HATES** ice-cream.'

그러나 우측이동분석을 주장하는 NMLBK (1998, 1999), Bahan (1996), Aarons (1994) 등에서는 이들을 강조구문으로 보지 않고 문미 부가(sentence-final tag)로 분석한다.

8) 그러나 우측이동분석의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P&L이 제시한 문장들의 문법성 판단에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인다. Aarons (1994)는 복합 wh-어구가 문미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보고 우측이동분석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구문도 단일 wh-어구가 문두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비수지적 wh-분포를 갖는다고 본다.

(i) [[JOHN BUY t_i YESTERDAY]$_{IP}$ WHICH COMPUTER$_i$]]$_{CP}$
wh

(ii) [[JOHN BUY t_i YESTERDAY]$_{IP}$ WHICH COMPUTER$_i$]]$_{CP}$
wh

P&L은 wh-doubles구문과 비의문문 doubles구문과의 표면적인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미의 wh-double은 [+F] C^0에 기저생성된다고 제안한다. 의문사 wh-요소는 내재적인 초점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F]자질을 갖는 wh-twin의 CP 지정어 자리로의 인상은 double의 [+F]자질이 점검되어지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연유로 P&L은 wh-doubles구문의 구조를 (11)과 같이 설정하였다.

4. KSL에서의 wh-의문문

4.1 KSL의 wh-의문문의 유형과 특성

KSL의 wh-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3) (a) <철수> <무엇> <샀다>
wh

(b) <철수> <샀다> <무엇>
wh

(c) <철수> <샀다> <무엇>
wh

(d) <무엇> <철수> <샀다>
wh

(e) <무엇> <철수> <샀다> <무엇>
wh

(f) <철수> <무엇> <샀다> <무엇>
wh

(g) <무엇> <철수> <무엇> <샀다> <무엇>
wh

(h) <무엇> <철수> <무엇> <샀다>
wh

KSL의 wh-의문문 유형은 ASL보다 더 복잡하면서 다양하다. (a)는 wh-단어가 제자리에 있는 유형으로 절 전체에 비수지적 wh-표지가 분배되어야 한다. (b)와 (c)는 wh-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비수지

적 wh-표지의 분배는 선택적이다. (d)는 wh-단어가 문두에 나오는 유형이고 (e)는 wh-단어가 문두와 문미에 동시에 나타나는 wh-doubles구문이다. (f)는 wh-단어가 제자리에 있고 같은 wh-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도 다시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g)는 (e, f)의 혼합형으로 wh-단어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wh-단어가 문두와 문미에 동시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h)에서는 wh-단어가 제자리에 있고 같은 wh-단어가 문두에만 다시 나타나는 유형이다.[9] [10] 여기서 사용되는 wh의 비수지적 신호는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면서, 눈썹을 올려, 눈을 둥글게 크게 뜨고, 입술을 뾰족하게 하여 둥글게 만드는] 행위들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ASL의 wh-표지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문법적인 문장인 (13a-c)와 비문인 다음의 (14)의 비수지적 통사적 wh-표지의 분포를 고려하여 보면 KSL도 ASL과 같은 비수지적 wh-표지에 대한 분포의 일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KSL의 예는 우측이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4) a. *<철수> <무엇> <샀다>
wh

b. *<철수> <무엇> <샀다>
wh

9) (13e-h)의 네 가지 유형은 좌측이동분석에서 제시한 wh-doubles 구문특성에 적용하거나 복합문장의 담화기능으로 재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ASL과 같이 나타나는 wh-doubles 구문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구문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0) 여기서 흥미로운 경우는 (13f-h)의 예이다. wh-단어가 제자리에 나타나면서 동일한 wh-단어가 문미(f)와 문두(h)에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g) 다시 나타난다. 또한 (13)의 여덟 가지의 경우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wh-단어가 논항 자리인 제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 경우(a, f, g, h)이고 gap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b, c, d, e)로 반으로 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gap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동에 의한 wh-흔적(trace)인지 또는 문맥에서 해석을 복원할 수 있는 공논항(null arguments)인지가 두 가지 이동분석의 핵심이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유형을 이동현상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어와 같이 wh-뒤섞기(scrambling)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뒤섞기 구문을 통사적인 이동현상으로 본다면 gap을 보여주는 예들은 우측 또는 좌측으로의 wh-뒤섞기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찰에 의하면 KSL은 한국어와는 달리 논항의 문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외형적인 수화표지가 없으므로 어순의 변화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미에 동일한 wh-단어가 나타나는 예를 wh-단어의 뒤섞기 구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13d)와 같이 wh-단어가 문두에 나와도 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는 좌측이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11] 또한 (13e)는 wh-doubles 구문으로 KSL에서는 우측이동보다는 좌측이동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의 4.2.3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2 KSL과 ASL wh-의문문의 두 가지 분석에 대한 비교

4.2.1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

단문에서의 (13a-c)와 비문인 (15)가 보여주는 wh-표지의 분포의 일반성은 매입절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에서도 올바르게 예측해주기 때문에 우측이동분석의 이점이 있다.

(15) a. [[[[<철수> t_i <샀다>]$_{IP2}$ t_i]$_{CP2}$ <너 > <알다>]$_{IP1}$ <무엇>$_i$]$_{CP1}$
wh

b. [[[[<철수> t_i <샀다>]$_{IP2}$ t_i]$_{CP2}$ <너 > <알다>]$_{IP1}$ <무엇>$_i$]$_{CP1}$
wh wh

c. *[[[[<철수> t_i <샀다>]$_{IP2}$ t_i]$_{CP2}$ <너 > <알다>]$_{IP1}$ <무엇>$_i$]$_{CP1}$
'너는 철수가 무엇을 샀는지 아니?'
'*What do you know Chulsoo bought'[12]

(15)에서 의문사 <무엇>은 매입절에서 오른쪽으로 문미까지 추출이 가능하고 (15a-b)와 (15c)의 문법적인 대조가 보여주듯이 우측이동분석이 예측하는 (6)의 wh-표지의 분포의 일반성을 만족시켜준다.

---

11) ASL에서는 이러한 예에 대한 문법성의 판단이 학자마다 다르다. 우측이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i)의 예를 많은 정보제공자들이 비문으로 보고하므로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좌측이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적절한 문맥에서 (i)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wh
(i) ?*WHO JOHN HATE
'Who did John hate?'

12) 영어에서는 know동사는 "bridge verb"가 아니므로 what이 문두에 나타나면 비문이 되나 KSL의 예문의 문법성을 고려하면 <알다>동사는 영어의 "bridge verb"와 같이 인식되는 것같다.

흥미롭게도 (15)의 wh-흔적인 t자리에 손몸짓 수화 <무엇>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도 모두 받아들여지는 문장이 된다.

(16) a.[[[[<철수><무엇><샀다>]$_{IP2}$ <무엇>]$_{CP2}$ <너><알다>]$_{IP1}$ <무엇>]$_{CP1}$ (wh)

b.[[[[<철수> t_i <샀다>]$_{IP2}$ <무엇>$_i$]$_{CP2}$ <너> <알다>]$_{IP1}$ <무엇>$_i$]$_{CP1}$ (wh)

(16)과 같은 변이형은 우측이동보다는 좌측이동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16) a'. [<철수><무엇><샀다>]$_{hn}$ [<무엇>]$_{wh}$ [<너><알다>]$_{hn}$ [<무엇>]$_{wh}$

'철수가 무언가를 샀다. 무언데? 너 알잖아. 무언지?

'What? Chulsoo bought something. You did know. What?'

b'. [<철수> e <샀다>]$_{hn}$ [<무엇>]$_{wh}$ [<너><알다>]$_{hn}$ <무엇>]$_{wh}$

'철수가 (무언가를) 샀다. 무언데? 너 알잖아. 무언지?

'What? Chulsoo bought (something). You did know. What?'

KSL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의문사 wh-단어인 <무엇>이 비한정적인 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인 <무엇>과 손몸짓 수화가 동일하므로 비수지적 신호에 의하여 이를 구별한다.[13] 또한 문맥에서 복원되는 공논항과 드러나

13) 한국어에서 (i)과 같이 wh-의문사와 이에 상응하는 비한정 양화사가 같은 형태적 꼴을 가질 경우에 이들은 음의 높낮이와 액센트(pitch-accent)에 의해 구별된다.

(i) 철수가 누구를 만났니?

a. Who did Chulsoo meet?

b. Did Chulsoo meet anybody?

wh-단어에 음의 높낮이와 액센트가 주어지면 (ia)와 같이 wh-단어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으면 (ib)와 같이 비한정 양화사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하게 KSL에서도 (ii)과 (i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wh-의문사와 비한정적 양화사는 같은 수화형을 가지나 문장에서 비수지적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이를 구별하는 듯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소리언어의 초분절음이 수화언어에서 비수지적 신호와 상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wh-단어가 비한정적인 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 외

지 않는 wh-단어의 사용은 KSL에서도 가능하다[14]. (16a-b)과 같은 다양한 변이형들이 문맥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ASL의 좌측이동분석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면 이는 각각 (16a'-b')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즉, 각 문장은 네 개의 복합문장으로 구성된 담화기능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4.2.2 문두에만 나타나는 wh-목적어

우측이동과 좌측이동분석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문은 다음과 같은 예이다.

(17) <무엇> <철수> <샀다>
wh
'철수가 무엇을 샀나?'
'What did Chulsoo buy?' (=13d)

ASL에서는 문두의 wh-목적어을 갖는 문장은 문법성의 판단에서 모두 일치하지 않지만 (주석 11) 참조), KSL에서는 (17)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확인된다. 우측이동분석은 (17)의 예를 비문으로 예측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나 좌측이동분석은 (17)의 예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올바로 예측한다. 그

미인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 해석되는 (ii)의 경우와 wh-의문사로 쓰인 (iii)의 경우를 구분해주는 것이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는" 행위의 유무로 관찰된다.

y/nq
(ii) <철수> <누구> <만났다>
'철수가 누군가를 만났나?' (yes-no 의문문)
wh
(iii) <철수> <누구> <만났다>
'철수가 누구를 만났나?' (wh-의문문)

14) KSL에서도 ASL과 같이 적절한 문맥에서 손몸짓 수화로 나타나지 않는 wh-단어 (i)과 공논항의 사용(ii)이 가능하다.

wh
(i) <이름>
'너 이름이 뭔데?'
wh
(ii) <점심> e <먹었다>
'너 점심에 무엇을 먹었니?'

러므로 (17)과 같은 유형의 구문을 고려하면 우측이동분석 보다는 좌측이동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3 wh-doubles 구문

KSL도 다음과 같은 wh-doubles 구문이 나타난다.

(18) <무엇> <철수> <샀다> <무엇>
wh
'철수가 무엇을 샀나?'
'What did Chulsoo buy?'[15] (=13e)

앞 소절 3.2에서 살펴본 좌측이동분석에 따르면 (18)의 구조는 (10)보다는 (11)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KSL의 문법성의 대조를 보여주는 예에서 찾을 수 있다.

(19) a. <누구> <차> <어제> <철수> <고치다> <누구>
wh

b. *<누구> <차> <어제> <철수> <고치다> <누구> <차>
wh
'철수가 어제 누구의 차를 고쳤나?'
'Whose car did Chulsoo fix yesterday?'

(19b)와 같이 wh-double이 복합어구로 나타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좌측이동분석이 (19a-b)의 문법성의 대조를 잘 설명해준다. 더욱이 이에 대한 반례로 우측이동분석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KSL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비문이 된다.[16]

---

15) 우측이동분석에 의하면 문두의 wh-요소 <무엇>은 CP의 좌측에 기저생성되어 부가되기 때문에 (18)의 유형의 해석은 'what, what did Chulsoo buy?'이 된다.

16) 우측이동분석의 주장하는 학자들은 문미의 wh-어구는 소유격을 갖는 어구의 잘못된 선택이라 일축하고 소유격표시가 수화로 주어진 어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논의와 예문은 NMLBK (1998)을 참조하시오.

wh
(20) a. ?*<누구><의><차> <어제> <철수> <고치다> <누구><의><차>

wh
b. *<누구> <차> <어제> <철수> <고치다> <누구> <의> <차>
'철수가 어제 누구의 차를 고쳤나?'

표준수화에서 사용하는 소유격인 <의>를 삽입하여 wh-복합어구를 만들어 (20a)에서는 문두와 문미에 동시에 나타난 문장은 매우 어색하다.[17] 또한 (20b)에서와 같이 문두에서는 농아식 수화인 wh-복합어구인 <누구><차>로 나타나고 문미에 표준수화의 <의>를 삽입하여 혼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KSL은 wh-어구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동일한 wh-어구가 문미에 나타나는 wh-doubles 구문이 사용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wh
(21) <철수> <무엇> <샀다> <무엇> (13f)

KSL에서는 (21)과 같은 wh-doubles 구문이 wh-의문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21)의 의문문 분석은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

wh
(22) a. <철수> <무엇> <샀다> <무엇>
'철수가 무엇을 샀나?'

hn wh
b. <철수> <무엇> <샀다> <무엇>
'철수가 무언가를 샀다. 무엇이지?'

(22a)는 단문의 wh-의문문으로 (22b)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복합문장의 담화기능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좌측이동 분석은 다음과 같은

17) 농아식 한국수화언어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격표지를 갖고 있지 않고 어순과 문맥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파악한다. 본 논문은 표준수화가 아니라 자연언어인 농아식 수화의 자료에 초점을 둔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22b)와 같이 의문사 wh-단어와 비한정적인 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의 해석이 문맥에 따라 가능하므로 다양한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22a)에서 문미에 나타난 wh-단어는 초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아래의 (23)의 문법성의 대조를 설명할 수 있다.

(23) a. <어제> <철수> <누구> <차> <고치다> <누구>
wh

b. *<어제> <철수> <누구> <차> <고치다> <누구> <차>
wh

c. *<어제> <철수> <누구> <차> <고치다> <누구> <의> <차>
wh

'철수가 어제 누구의 차를 고쳤나?'

'Whose car did Chulsoo fix yesterday?'

좌측이동분석에 의하면 (23a)의 구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wh-doubles 구문은 [+F, +WH] 두 개의 자질을 갖고 있고 초점의 기능을 하는 문미에 나타난 wh-단어는 초점자질 [+F]을 갖고 있는 C자리에 기저생성되고, 제자리에 있는 'twin' 첫 의문사 wh-어구인 <무엇>은 내재적인 [+WH]자질을 갖고 있는 운용자이므로 twin인 <무엇>은 CP의 왼쪽 지정어 자리로 인상하는 LF과정을 겪고 LF에서 twin은 문미 double인 <무엇>과 지정어-머리어의 일치관계에 있어 [+F]자질을 점검함으로써 문미 double인 wh-단어인 <무엇>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좌측이동분석은 초점자리인 C의 위치에는 X^0의 범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복합어구인 <누구>(<의>)<차>가 문미에 오면 비문이 되는 (23b, c)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예측한다.

(18)과 (22a)의 유형의 차이점은 단지 wh-단어의 이동이 표면구조에서 일어났는가 또는 LF에서 일어나는가에 있다. 좌측이동분석에 따르면 (18)에서는 표면구조에서 통사적 이동이 있고 (22a)에서는 LF에서 이동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의 예측력에 있다. 다음의 ASL과 KSL의 예를 보자.

(24) *WHO MARY SEE YESTERDAY WHO
wh wh

'Who did Mary see yesterday?' (Aarons 1994: 125, fn. 22)

(25) *<무엇> <철수> <샀다> <무엇>
wh wh
'철수가 무엇을 샀나?'

만약 우측이동분석을 따른다면 (24)와 (25)는 올바른 문장으로 예측되어야 하나 이들은 비문이다. 그러므로 Aarons (1994: 125)은 (24)와 같은 문장은 비문일 통사적인 이유가 없어야 되지만 왜 비문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측이동분석은 첫 의문사인 WHO는 기저에 생성되는 화제이고 문미에 있는 WHO가 CP 오른쪽 지정어 자리로 통사적 이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므로 (24)는 올바른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로 예측되어야 하지만 비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KSL의 (25)도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좌측이동 분석을 따른다면 (24)와 (25)의 비문법성은 올바르게 예측된다. 즉, 문두의 wh-단어는 CP의 왼쪽 지정어 자리로 통사적인 이동을 하므로 절 전체에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가 분배되어야 하나 (24)와 (25)는 그렇지 못하므로 비문임을 올바르게 예측한다.

4.2.4 wh-요소 좌전위구문 (Wh-Left Dislocation)

KSL에서는 다음과 같이 wh-목적어가 문두에 나타날 때 동사에 주어-목적어 일치관계를 주는 대명사적 요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18]

(26) a. [<누구>$_i$ [<영희> IX$_i$ <때렸다>]]
wh

b. [<누구>$_i$ [<영희> IX$_i$ <때렸다>] <누구>]
wh
'누구를 영희가 때렸니?'

그러나 (26a-b)와 같은 대명사적 지시를 동사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18) IX는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명사적 지시를 의미하는 지표(index)이다. 의문사 <누구>가 목적어이므로 동사 <때리다>는 원래 목적어 자리의 공간위치에 두고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일치를 나타내준다. 이러한 대명사는 동사에 붙는 접어(clitics)형식으로 나타난다.

(27) a. *[<누구> [<영희> <때렸다>]]
wh

b. *[<누구> [<영희> <때렸다>] <누구>]
wh
'누구를 영희가 때렸니?'

(27a-b)는 '누가 영희를 때렸니?'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26)과 (27)의 문법성의 대조를 고려하면 문두에 나타나는 wh-요소는 자기 원래 논항자리에 대명사적 지시를 남겨두어야 (26)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26)과 같은 구문은 다음과 같이 영어에 나타나는 화제화 구문과는 구별되는 좌전위구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8) a. $Bill_i$, I like t_i (주제화구문)
b. Bill, I like him (좌전위구문)

(26)과 같은 구문에서 wh-요소가 좌전위되어 있기 때문에 절 밖에서 기저생성된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문을 wh-좌전위구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좌전위구문은 비의문문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9) a. *<고양이>, <개> <쫓았다>
b. <고양이>$_i$, <개> IX_i <쫓았다>
'고양이를 개가 쫓았다'

KSL은 SOV의 기본어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어순변형을 가져오면 그 의미를 문맥에서 복원될 수 없다면 어순변화가 원래의 논항자리와 동일 지표를 갖는 대명사적 지시를 동사에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문장을 얻지 못하고 (29a)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동사의 목적어가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를 지시할 수 있는 <때리다>, <쫓다>, <만나다> 등의 공간동사(spatial verbs)만 그 목적어를 문두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이다.[19] 또한 KSL은 이러한 어순변화가 일어나더라도 ASL과 같이 문두에

19) 본 논문은 wh-의문문에 관한 주제에 한정되므로 지면관계상 KSL의 어순과 주

위치한 요소에 화제와 같은 유표적인 비수지적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ASL에서는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이 어순변화를 예측하게 하나 KSL에서는 대명사적 지시에 의한 주어-목적어 일치관계를 동사에 정보를 주어 어순변화를 예측시켜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KSL은 ASL보다 비수지적 신호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변화가 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26)과 같이 기저생성되는 wh-요소의 좌전위구문의 KSL의 예는 문두에 나타나는 wh-요소가 화제의 의미를 갖고 기저에 생성된다는 우측이동분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같다. 특히 (26b)는 문두에 있는 wh-요소인 <누구>는 ASL의 우측이동분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저에 생성되고 문미에 나오는 <누구>가 우측으로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ASL과 KSL의 wh-의문문에서는 비수지적 신호를 문법적인 표지로 사용하고 wh-단어가 문장의 끝인 오른쪽에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소리언어의 초분절음과의 상응되는 선상에서 문법적인 표지로서의 비수지적 신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비수지적 wh-표지의 분포의 일반화에서 출발한 wh-우측이동 분석과 wh-doubles구문의 특성에서 출발한 wh-좌측이동 분석의 두 가지 이론적인 상반된 견해를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ASL에서 제시한 wh-우측이동분석과 wh-좌측이동분석에서의 주요 논쟁을 중심으로 KSL의 wh-의문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단문과 복문의 비수지적 wh-표지 분포와 관련된 설명은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측이동분석이 좌측이동분석보다 이들의 일반화를 잘 예측해주지만 매입문에서의 wh-단어의 추출현상에서 야기되는 여러 변이형들의 설명은 적절한 문맥에 의존하는 우측이동분석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문두에만 나타나는 wh-목적어의 유형은 KSL은 우측이동분석의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저생성되는 wh-요소의 좌전위구문의 KSL의 예는 문두에 나타나는 wh-요소가 화제의 의미를 갖고 기저에 생성된다는 우측이동분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면에 wh-doubles 구문은 좌측이동분석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제화 또는 좌전위구문의 자세한 논의는 장세은 & 양상백 (1999)를 참조하시오.

KSL의 wh-의문문의 특성은 ASL의 두 가지 이동분석이 제시한 증거들을 공히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을 요약한 도표이다.

(59) KSL의 wh-의문문의 특성과 두 가지 wh-이동분석별 적용 설명력

논의점\분석별 적용 설명력		우측이동	좌측이동	주요 예문
매입절에서의 wh-단어추출	문미까지 추출	○	×	(15)
	gap부분에 wh-요소가 다시 나타나는 변이형	×	○	(16)
문두에만 나타나는 wh-목적어		×	○	(17)
wh-doubles		×	○	(18)
wh-요소 좌전위 현상		○	×	(26b)

ASL에서의 우측과 좌측의 상반된 이동분석의 주장의 원인은 학자마다 wh-의문문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된 자료관찰의 문법성 판단에 따라 그 의문문의 해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측이동분석은 문장에서의 문법성을 고려하였고 좌측이동분석은 담화중심의 적절한 문맥에서 문법성을 고려하였기에 동일한 수화단어의 연속체로 구성된 문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비수지적인 신호는 매우 시간적으로 짧고 일반인이 이를 구별해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KSL에서도 비수지적인 신호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의문문의 다양한 유형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ASL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이동 분석 중 어느 것이 KSL wh-의문문의 분석에 이론적 우위를 갖는지를 결론짓기에는 더 세밀한 KSL의 자료수집과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세온 (1997) 수화언어와 음운중첩현상, 언어학 제21호, 한국언어학회 263-287.

장세은 & 양상백 (1999) 수화언어에서의 전치구문: 주제화구문 또는 좌전위구문, 새한영어영문학회 봄학술발표논문.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7호(예정).

Aarons, Debra (1994) *Aspects of the Syntax of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Aarons, D., Bahan, B., Kegl, J. and Neidle, C. (1992) "Clausal structure and a tier for grammatical mark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15:2, 103-142.

Bouchard, Denis (1996) "Sign language & language universals: the status of order & position in grammar." *Sign Language Studies* 91, 101-160.

Fischer, S. (1975) "Influences on word order change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Li, C. N., ed., *Word Oder and Word Order Chang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Greenberg, G. R. (1984) "Left dislocation, topicalization, and interjec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 28-287.

Liddell, S. K. (1978) "Nonmanual signals and relative claus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 edited by P. Siple, 59-90, Academic Press, New York.

Liddell, S. K. (1980) *American Sign Language Syntax*, Mouton Publishers, New York.

Klima, E. S. & U. Bellugi (1979) *The Signs of Language*,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Neidle, Carol, D. MacLaughlin, R. G. Lee, and B. Bahan (1998) "The rightward analysis of wh-movement in ASL: A Reply to Petronio and Lillo-Martin," *Language* 74, 819-831.

Petronio, Karen (1991) "A focus position in ASL,"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4, 211-225.

Petronio, Karen (1993) *Clause Structure in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Petronio, Karen & D. Lillo-Martin (1997) "Wh-movement and the position of Spec-CP: evidence from American Sign Language," *Language* 73, 18-57.

Wilbur, R. B. (1979) *American Sign Language: Linguistic and Applied Dimensions*, second edition, A College-Hill Publication, Boston.

606-79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Email: jhang@hanara.kmaritime.ac.kr
Tel: (051) 410-4595
Fax: (051) 404-3987